

'빛으로 물드는 삼타마을 크리스마스'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삼타할아버지 퍼레이드 · 문화공연 · 체험행사 등 풍성

완주군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명품관광지 삼례문화예술촌 일원에서 '빛으로 물드는 삼타마을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삼례 문화예술촌을 빛' 테마를 콘셉트로 연출한 테마형 문화행사로, 20·21·24·25·27·28일, 총 6일간 운영된다.

행사 기간 동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살린 대형 트리와 야간 경관조명, 포토존이 조성돼 삼례문화예술촌을 빛의 문화공간으로 연출하며, 방문객들에게 겨울밤의 특별한 문화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삼타할아버지 퍼레이드'가 문화예술촌 곳곳을 누비며 관람객과 함께 사진을 찍고, 소중한 선물을 나누는 참여형 콘텐츠로 현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다.

시간	주요 프로그램	비고
11:00 - 11:40	비스밀 공연	야외 주무대
11:40 - 12:00	관객 참여 이벤트	풍기 이벤트
12:00 - 13:30	정식시간	
13:30 - 13:40	삼타할아버지 퍼레이드	
13:40 - 14:00	관객 참여 이벤트	풍기 이벤트
14:00 - 14:30	마술 공연	야외 주무대
14:30 - 15:00	관객 참여 이벤트	풍기 이벤트
15:00 - 15:10	삼타할아버지 퍼레이드	
15:10 - 15:30	관객 참여 이벤트	풍기 이벤트

삼타할아버지 일정표

문화공연으로는 △크리스마스 인형극 △뮤지컬 갈라쇼 △프론트아트쇼 △버싱킹 △마술쇼

등이 마련되며, 크리스마스 당일부터는 딸기케이크 · 팝업카드 · 조명등 만들기, 3D펜 체험,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처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뽑기 이벤트와 전통놀이, 새해 소원벽 꾸미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호빵 · 군밤 · 떡볶이 등 겨울 간식 먹거리존도 함께 운영해 방문객들의 체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삼례문화예술촌 삼타마을 크리스마스 행사를 통해 겨울 감성과 문화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삼례문화예술촌이 계절과 테마가 살아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4부 '굿패와 전쟁' (7)

굿은 금지입니다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아직 스무 살도 안 되었는데?" 어린 딸을 시집보내기 아까운 모양인지 연기택은 슬쩍 비켜섰다.

"아이고, 나도 그렇고 연기택도 그렇고 스무 살도 안 되어서 시집왔잖아, 안 그래?"

"그러긴 하지..... 하긴, 혼인할 바에야 빨리 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도 둘이 하는 짓을 보면 일을 냈을 지도 모르겠다니까."

"일이라니?"

"아이참, 몰라서 물어?" 연기택은 신동택을 쳐다보며 눈을 깜박거렸다.

"아하....."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다는 듯 얼은 미소를 지으며 신동택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야. 그렇다면 더 서둘러야겠는데, 호호호."

그렇게 놓이든 진이든 남준과 명희의 혼사말이 오고 가고 있을 무렵, 전방에서 전경이 터졌다는 거무튀튀한 소식이 고창 전역을 덮었다.

1950년 7월 20일 인민군 제6사단 방호산 부대는 장항, 군산, 부안을 거쳐 고창에 들어왔다. 8월 들어서 남준의 봉림마을과 명희의 황전마을에도 인민군의 발길이 닿았다.

정규 인민군 복장을 한 자들은 보이지 않고 허름한 산사람 옷을 입은 자들이 동네를 활개치며 돌아다녔다. 마을에서는 즉시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인민위원회는 마을 치안을 담당할 자위대를 조직하였다.

황전마을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박대우가 자위대장을 맡았다. 그는 자위대장을 맡자마자 공산주의에 협조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으며 특히 봉건세력의 후손들이 모여 있는 봉림마을은 언제든 손을 보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퍼뜨렸다.

마을의 20세 이상 젊은 사람들은 전자동원령에 의해 만들어진 인민의용군에 가입해야 했고 무장중학교에서 정식훈련을 받

았다. 박대우는 자위대장 완장을 찬 날 자위대원들과 함께 박명희의 집을 찾았다.

"굿은 금지입니다. 저 신당도 다 철거하세요!"

"아니, 그게....."

박규환과 연기택은 온몸을 덜덜덜 떨면서 입만 달달일 뿐 박대우의 요구에 다른 말을 하지 못했다. 좌익의 완장을 차던 그날부터 박대우는 당골 일은 공산주의 사상에 해가 되는 행위라며 반대했고 하지 말 것을 요구했었다. 이제 공산주의 세상이 된 마당에 그 요구는 요구가 아닌 명령이 되었다.

"오늘 이후로 굿을 하거나 하는 징조가 보이면 인민의 이름으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바로 우리 같은 농민들의 세상이 왔다 이겁니다. 미신이나 의존하면서 안이한 생각으로 운대다 세상일을 맡기기보다는 인민 스스로 나서서 역경을 이겨나가고 개척하는 삶이 되어보자 이겁니다. 하하하."

박대우는 뭐가 그리 좋은지 활기차게 웃으며 자위대원들을 이끌고 떠났다. 박규환과 연기택은 한동안 얼어버린 채 움직일 줄 몰랐다.

"일본 놈들이 득세할 때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그래도 신당을 치울 수는 없어요. 신당을 치운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박규환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연기택의 의중은 곧 박규환의 생각이니 마찬가지였지만 현실은 너무 막막했기에 이런 답도 저런 답도 내놓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연기택의 말대로 당장은 신당을 치울 마음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낮이나 밤이나 노력동원이다 학습이다 해서 마을 공터나 회관에 모였다.

'사랑 · 나눔 · 희망 콘서트' 열려

산서중 · 고등학교, 제11회 산서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개최

산서중 · 고등학교(교장 박인숙)는 지난 17일 오후 3시, 산서중 · 고등학교 산서아트홀(오케스트라실)에서 '2025년 제11회 산서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사랑 · 나눔 · 희망 콘서트'를 주제로, 문화 소외 지역 학생들의 음악적 재능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건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산서중 ·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연주 실

력을 선보이며, 음악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무대를 펼쳤다.

공연 프로그램은 행진곡과 클래식, 영화 · 애니메이션 OST,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곡 선정으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즐기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공연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육승수 산서중 · 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서영민 산서초등학교 교장, 권영창 오



수중학교 교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와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개방형 문화 행사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장수=고관호 기자

가족 연극 '만선' 24~25일 남원 청아원 공연장서 개최



남원시는 희로애라이 뒤엉킨 가족의 초상을 통해 현대인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연극 '만선'을 오는 24일 오후 7시, 25일 오후 3시 남원 청아원 공연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관객을 찾아가는다.

이번 공연은 동해 만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통통배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가족극으로, 고요한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이들의 갈등과 대화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얽힌 사랑과 원망, 책임과 체념을 사실적으로 담아내며, 조업을 위해 바다로 나왔지만 술에 취해 서로를 닦아며 다투는 가족의 모습에서 출발, 끝으로는 사소한 말다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의 골과 말하지 못한 상처들이 교차한다. 특히 서로의 몸에 빗줄을 묶은 채

바다에 뛰어들겠다는 이들의 모습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게 끊어낼 수 없는 가족 관계의 본질을 강렬하게 드러낸다.

연극 '만선'은 2011년 초연 이후 꾸준히 무대에 오르며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유효한 가족 서사를 통해 관객과 호흡해 왔으며, 공연은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공연 시간은 약 100분으로 전석 1만원으로 예매는 인터넷파크·놀터에서 예매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광한루원 원앙 동지 '눈길'

남원시는 조선시대 지방건축의 백미이며 명승인 광한루원은 우리나라 4대 대표 누각 중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평가받고 있는 광한루원에 원앙 백머리가 동지를 틀어 눈길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원앙은 해마다 광한루원을 찾아와 겨울을 나다가 초봄이 되

면 떠나는 철새이지만, 몇 해 전부터는 떠나지 않고 광한루원에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키며, 이제는 백머리가 되어 잉어와 함께 광한루원의 명물이 되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문화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전주매일 캠페인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 · 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 · 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